세미나자료 2016-06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한국의 출산·육아 문화 진단과 쟁점

2016. 12. 13.(화) 10:00~12:00

THE MOST(외교센터 12층)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2016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 주 제 | 한국의 출산·육아 문화 진단과 쟁점

| 일 시 | 2016. 12. 13(화) 10:00 ~ 12:00

| 장 소 | THE MOST(외교센터 12층)

| 참석자 |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구성원 외 (약 100여명)

| 일정표 |

구 분	진 행 내 용	
9:30~10:00 (30분)	등록	
10:00~10:20 (20분)	개회	사회 :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국민의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인사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축사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0:20~11:00 (40분)	주제발표 1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2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11:00~11:40 (40분)	좌장	제경숙 교수(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토론	홍승아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김혜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김수완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11:40~12:00 (20분)	질의응답 및 폐회	
점심식사		

Contents

2016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 개 회 사 |

우 남 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 주제발표 1 |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01

문 무 경 국제연구협력실장(육아정책연구소)

| 주제발표 2 |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 31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 토 론 | 57

좌장: 제 경 숙 교수(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토론: 홍 승 아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 59

김 혜 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 63

김 수 완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68

우 석 진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 73

개회사

우 남 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러 귀빈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육아지원 정책의 앞날을 차분히 전망하고 준비하는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학계, 유관기관, 그리고 현장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육아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중요한 육아정책의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한국의 출산·육아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고 부모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개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아 키우던 이전의 세대 보다 오히려 더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으나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 힘들게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매 시대 변화하는 출산·육아문화를 이해하고 현 시대의 출산·육아문화의 특성을 진단하여, 즐겁게 아이를 낳고 기쁨으로 키우는 행복한 문화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된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한 사회의 문화는 쉽게 변화하기 힘들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어느 순간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어 왔으며 그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양식과 인식, 가치관과 전반적인 문화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행위 또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매 시대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구속하는 문화가 예전과 현재는 얼마나 다른지, 현재의 출산·육아 문화 속에서 부모들은 어떤 기쁨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진단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출산·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의 조성'과 관련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자녀 출산과 육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출산과 육아는 곧'행복'이라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소의 행사에 축사를 전해주셔서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신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 귀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협력연구실장님과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님, 토론자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님, 김혜준 사단법인'함께하는아버지들'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가 현재 한국 사회의 출산·육아 문화를 진단하고 향후 자녀를 출산·양육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과,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를 비롯하여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1 |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문 무 경 국제연구협력실장(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1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1)]

문 무 경 국제연구협력실장(육아정책연구소)

Ⅰ. 서 론

우리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관계부처 합동, 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를 비롯하여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8년 차상위계층에서 2009년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 2013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9). 이러한 획기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정착은 미흡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8).

그동안의 육아지원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관보육 위주로 이루어져 '부모로서의 권리' 보장이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5). 일부에서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혜택의 반대급부로 영유아를 둔 부모가 올바른 자녀양육관을 정립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드높다.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부모됨과 자녀양육은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더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10여년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재생산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만혼, 비혼, 이혼

1) 본 고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조숙인, 김정민)을 토대로 작성됨.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선영 외, 2009). 이혼 및 미혼부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구는 2015년 기준 1,783가구로 전체 가구의 9.5%를 차지하며 소폭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6). 이혼시 서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상당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불임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딩크족(DINK), 싱크족(SINK), 싱커족(THINKERS)으로 지칭되는 '의도적 무자녀 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네이버 백과사전, 2016)이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 또한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출산,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막내자녀 출산부터 자녀의 첫 결혼까지의 기간과 빈 둥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최연실, 2015: 27).

본 고에서는 가족형태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가족가치 특히, 부모됨과 바람직한 부모상, 자녀 가치와 기대 및 양육가치관에 주목하여 세대, 성별에 따른 부모 대상별 의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부모됨 의식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20대~50대 성인 총 1,000명의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의식에 관해 질문하는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50대 성인 조사 대상의 표집은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참고하여 인구구성비에 맞게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성,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비례할당하여 표집하였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부모 역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 양육 방식 및 지

원 요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이다(표 1 참조). 기혼 무자녀와 미혼자의 경우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의 실제(양육정서, 부모 자녀 관계, 자녀 훈육, 자녀와 보내는 시간, 양육 어려움, 육아지원정책 경험) 관련 문항은 삭제한 별도의 질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부모됨 의식 및 역할	• 부모됨에 대한 의견: 부모됨 준비 필요성, 부모의 희생 및 의무정도, 부모의 경제능력 및 고용상태, 자녀 지원 시기 등 • 모 취업과 자녀양육: 취업모 역할 한계, 맞벌이가정의 가사와 양육 책임정도, 모 취업의 자녀도움 정도, 일과 양육 중 수월 정도 등
부모역할의 실제	• 맞벌이 여부,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별 분담 정도 • 자녀연령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부모 역할의 충분정도 및 불충분 영역*
자녀가치	• 자녀의 필요성 및 이유 • 자녀 가치에 대한 의견: 부부관계에 도움, 노년에 정서적·경제적 도움 등 •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의견: 형제·자매간 의지됨, 사회성 발달 긍정적, 부모의 관심이 분산됨, 외동 양육 수월함 등
자녀기대	• 자녀가 뛰어나기 바라는 것 • 희망 자녀 교육수준 및 직업
자녀양육 가치	•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및 기술
양육태도 질문	•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부모의 지나친 관심의 부작용, 엄격함 및 체벌 필요성, 자녀의 행동에 관심정도 및 반응정도, 자녀의 자립지원정도, 자녀의 순종정도, 자녀행동 관대 정도
양육정서 질문	• 자녀 양육 정서: 혼란스러움, 짜증스러움, 참고만 살고있음, 화풀이 하고싶을 때 많음, 자녀 미래가 걱정됨, 내 자신도 성장함 등* •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 느끼는 측면*
부모 자녀 관계	• 양육행동 빈도: 칭찬, 놀이, 함께 웃기, 자녀가 좋아하는 일 함께 하기, 처벌에 대한 자녀 태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 태도*
자녀 훈육	• 부모의 훈육빈도: 말로 타이름, 타임아웃 줌, 겁을 줌, 이야기를 거부함 등*
자녀와 보내는 시간	• 부모 주중/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 • 양육활동별 부모 참여시간*
양육 어려움	• 항목별 양육 어려움 정도: 일과 육아 병행, 부모역할 자신감, 다양한 육아정보 선택,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기 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기관 이용형태, 이용시기, 이유* • 과목별 학습 적정시기, 예체능 조기교육 필요성
육아지원 정책	• 국가와 회사의 양육지원 정도 • 아이기르기 좋은사회 여건을 위한 조건 • 육아지원정책 수혜경험*, 만족도 및 가장 필요한 정책

주: 기혼 유자녀 조사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기혼 무자녀 및 미혼 조사표에는 없는 문항에는 * 표시함.

조사표 문항은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조사(김은설 외, 2008)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부모됨 의식 및 자녀양육관 관련된 해외 및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추가하였다(김승권 외, 2012; 문무경 외, 2011; 서문희 외. 2012; Holland & Keizer, 2015; Oldershaw, 2002; Halpenny, Nixon, & Watson, 2010). 또한 부모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을 새롭게 추가 구성하였다.

3. 응답자 특성

20~50대 성인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013명으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연령대별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중에는 미혼자 259명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 57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316명, 자녀 1명 169명, 자녀 3명 이상은 7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2〉 20~50대 성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백분율(수)	구 분	백분율(수)
전체	100.0 (1,013)	연령대	
성별		20대	21.7 (220)
여성	49.6 (502)	30대	24.0 (243)
남성	50.4 (511)	40대	28.0 (284)
		50대	26.3 (266)
결혼여부		거주지역	
미혼	25.6 (259)	대도시	46.1 (467)
기혼	72.6 (735)	중소도시	40.3 (408)
이혼/사별/별거	1.9 (19)	읍면동	13.6 (138)
자녀유무		교육수준	
미혼	25.6 (259)	고졸이하	38.3 (388)
기혼유자녀	68.8 (697)	대학 재학	13.7 (139)
기혼무자녀	5.6 (57)	대학 졸업 이상	48.0 (486)
자녀수		월 가구소득	
0명	31.2 (316)	300만 미만	17.3 (175)
1명	16.7 (169)	300~450만 미만	42.3 (429)
2명	44.4 (450)	450~600만 미만	24.8 (251)
3명 이상	7.7 (78)	600만 이상	15.6 (158)

Ⅲ.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의 특징

1. 성별 자녀양육관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은 성별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1]과 같다.

가. 남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남성의 자녀양육관 키워드는 '경제적 지원자', '아버지의 주말 양육참여 보편화', '수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첫째, 아버지들은 가장 중심적인 자신의 역할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남성은 좋은 부모의 덕목과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로 모두 '경제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를 더 낳기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언급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좋은 부모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남성은 경제력뿐 아니라 책임감, 정직성, 근면, 성실함, 건강함 등을 여성보다 강조하였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세대차이, 권위적 태도 등을 여성에 비해 더 빈번히 언급하였다. 자녀와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고자 하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권위적 태도가 자신에게도 남아 있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말의 아버지 양육참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주중에 자녀에게 집중하여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주말에는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비슷한 정도로 아버지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각종 매체의 영향, 친구 같은 아버지 이미지의 대중화 등이 남성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의 아버지들은 주말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가를 함께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남성은 수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남성은 양육정보를 매체나 인터넷보다는 지인과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였다. 직장 술자리나 친구 모임에서 양육정보를 얻거나, 아내를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나. 여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여성의 자녀양육관 키워드는 '인내심', '자녀교육의 매니저', '능동적 양육정보 수집자', '양성평등'이다.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양육은 힘들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인식과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좋은 부모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인내심', '자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주중, 주말에 걸쳐 더 오랜 시간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신체적인 부담이 높았다.

둘째,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교육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와 사교육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이며,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를 더 출산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보육교육기관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 역시 교육에 대한 여성의 관심을 반영한다.

셋째, 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능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지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은 유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은 아이를 위한 음식, 장난감, 학습지 관련 정보를,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사교육 정보 등을 공유한다.

넷째, 여성에게 가정 내 양성평등을 통한 일 가정양립은 자녀양육에 중요한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자녀양육참여 시간은 남성에 비해 많고, 일하는 여성들의 양육참여 시간 역시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서 남성의 양육참여 시간보다 더 많았다. 남성은 직장퇴근 후 가정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직장일과는 별도로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에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 혼자만의 시간 혹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 내 양육과 가사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때에 자녀를 더 출산하고자 하였다.

	남성	여성
가치	책임감과 성실성	인내심과 소통,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역할	경제적 지원자	자녀교육의 매니저
어려움	권위적 태도	양육 전담(어머니 역할)
좋은 부모의 덕목 및 걸림돌	좋은 부모의 덕목은 경제력	경제력, 안내심, 자녀와 소통
	걸림돌에 경제력, 자녀와의 시간 부족, 세대차이, 권위적 태도	주변간섭, 인내력
자녀관및 양육신념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지지를 통해 양육의 기쁨을 느낌	인내하며 자녀양육
		자녀양육보다 직장일이 더 쉬움.
양육방식 및 실제	양육정보는 지인과 부모로부터	지인과 인터넷
	주말에 자녀와 더 긴 시간 보냄	아버지보다 긴 시간 양육
생애 주기별 자녀양육	출산 전에 가족계획에 관심	출산 전에 부부관계에 관심 청소년기 자녀의 교육지원에 치중
양육 지원 정책	자녀출산 조건은 사교육비 경감	보육교육기관 질 향상 요구
	공교육보육 강화 요구	양성평등(양육과 가사 분담) 요구

[그림 1] 성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 세대별 자녀양육관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을 세대별 공통적인 특징(그림 2 참고)과 각 세대별 차별화된 특징(그림 3 참고)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가. 공통적인 특징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대를 통틀어 자녀양육에 가장 큰 이슈는 '경제력'이다. 모든 세대에 걸쳐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 1순위는 경제력이고,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부모로서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 역시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역시 보육료 교육비 지원으로 나타나,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경향이 있다. 자녀양육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로 나타났는데, 자녀를 기르는 것이 모두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한명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부담이 큰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모든 세대의 부모는 자녀 영유아기가 부모로서 가장 도전적인 시기이며, 양육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정 내 역할분담과 일 가정 양립 고민이 가장 큰 영유아기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셋째, 가족의 참 의미, 가족의 원만한 유대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결과는 '자녀'가 가족을 유지시키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지지한다.

나. 세대별 특징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성을 각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가 서로 유사한 편이고, 40대와 50대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 2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20대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모역할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세대이다. 가장 적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0대 부모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녀와 함께 놀이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비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두드러진다.

인터넷에 능통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양육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고가의 육아용품을 다른 세대들에 비해 쉽게 구매하는 편이었다.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검색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행하는 육아 용품을 함께 구매하는 등 소비적인 양육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대 자녀양육에서 중요한 이슈는 일 가정 양립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여성의 역할은 자녀를 돌보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20대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영역을 잘 소화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3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소비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30대이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에, 30대가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관되게 사교육비 경감이 되어야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중 비용지원(보육료 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20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익숙하다. 자녀가 점차 성장해나감에 따라 자신의 양육지식이 부족함을 실감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원한다.

3) 4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사교육 소비 규모가 증가하여 부모 역할에서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는 세대가 40대이다.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자신의 부모 역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다. 양육에 대해 국가적 책임보다는 가정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50대와 함께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권위적 태도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통해서 양육정보를 얻고, 주로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가져야할 태도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자녀와 보내야하는 최소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나, 소통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4) 5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희생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강한 50대는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하고, 자녀로부터 얻는 지지에 큰 기쁨을 느낀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세대차이 때문에 자녀와 멀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40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통해 육아정보를 얻고, 자녀와 주로 식사하면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여성의 본래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지고, 젊은 세대의 소비적인 양육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자녀가 일찍 결혼한 경우 50대에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데, 직장에 발이 묶여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를 맡아

주는 경우가 많아서 탄력근무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양육친화인프라 증가에 관심이 많다.

	세대별 공통 특징
바람직한 부모상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은 경제력
	부모됨 준비시작의 적정시기는 예비부모
자녀관과 양육신념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성취감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용
양육방식 및 실제	자녀와의 대화주제는 일상생활 및 하루지낸 이야기
	부모역할 불충분하고 느끼는 원인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
	자녀양육에 지출 큰 항목 1순위 46.3% 사교육비
양육문화	양육 정보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습득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자녀 연령에 따라 관심사가 변화하고, 자녀 성인기에는 가족유대관계에 관심 상승
	자녀 영유아기에는 가정 내 역할분담과 일가정 양립을 고민
	자녀 청소년기에는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 상승
양육 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는 영유아기

[그림 2]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공통 특징

[그림 3]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0대	30대	40대	50대
	양육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 역할에 성취감이 높은 시기** 가정과 직장에서 **양육으로 인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	사교육 시작으로 비용 지출 증가, **국가 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시기 **양육지식과 부모역할에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	**사교육 본격화**로 지출 증가,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는 시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어려움** 인식	**자녀와의 소통을 원하며,** 자녀로부터 얻는 지지를 통해 부모로서 기쁨을 느끼는 시기 **희생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강한 세대
바람직한 부모상 및 부모교육	좋은 부모 덕목은 **경제력**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은 **주변 간섭**	부모됨 준비 시작은 예비부모 걸림돌은 시간 부족	부모됨 준비 시작 은 학생시기 걸림돌은 권위적 태도	좋은 부모 덕목은 자녀와의 소통 걸림돌은 세대차이
부모 역할에 대한 의식	여성 역할은 일보다 양육에 동의 안함			여성 역할은 일보다 양육
자녀관과 양육신념	양육하며 부모로서 성장 일과 양육 병행 어려움	자녀와 보내는 여가가 양육 기쁨		양육하며 참고만 산다고 인식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성취에 어려움 보수적 양육태도(엄격한 부모, 자녀의 순종)
양육방식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 **대화 주제는 자녀의 생활태도** **자녀와 보내는 최소 시간 인식 긴 편**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 **자녀와 보내야하는 최소 시간 가장 짧은 편**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 **대화 주제는 자녀의 진로, 미래**
양육실제	부모로서 역할 충분하다고 인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인식 낮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양육비 부담을 가장 낮게 인식** 내구재비용이 가장 지출 큰 항목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높음 양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인식 양육지식의 부족을 걱정	**부모역할의 충분정도 가장 낮게 인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걱정 사교육비가 가장 지출 큰 항목	
양육문화	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높은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의향**	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 낮은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의향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출산 전, 부부관계, 일가정양립, **가정 내 역할분담에 관심** 교육 및 학습지원에 관심			
양육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육아휴직** 자녀 출산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요구** 가정양육수당보다 **영아 보육료지원 선호**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 자녀 출산 위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보육교육 요구**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가장 만족**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낮게 인식** 자녀 출산 위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보육교육 요구**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은 **탄력근무제** 필요한 정책으로 **방과후와 양육친화 인프라 상승** 낮은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만족 비율**

3. 자녀수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을 자녀수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1명인 가정과 3명 이상인 가정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그림 Ⅵ-1-4 참고).

가. 자녀수 1명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1명의 자녀만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양육하는 자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긴 여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첫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험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긴 여가시간을 주장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외동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려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육정보를 얻고 있다. 첫 자녀를 양육할 때는 둘째 혹은 셋째를 양육할 때보다는 미숙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가 높은 편이다. 자녀를 어느 정도 양육하고 나서 직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거나, 현재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정책수요가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나. 자녀수 2명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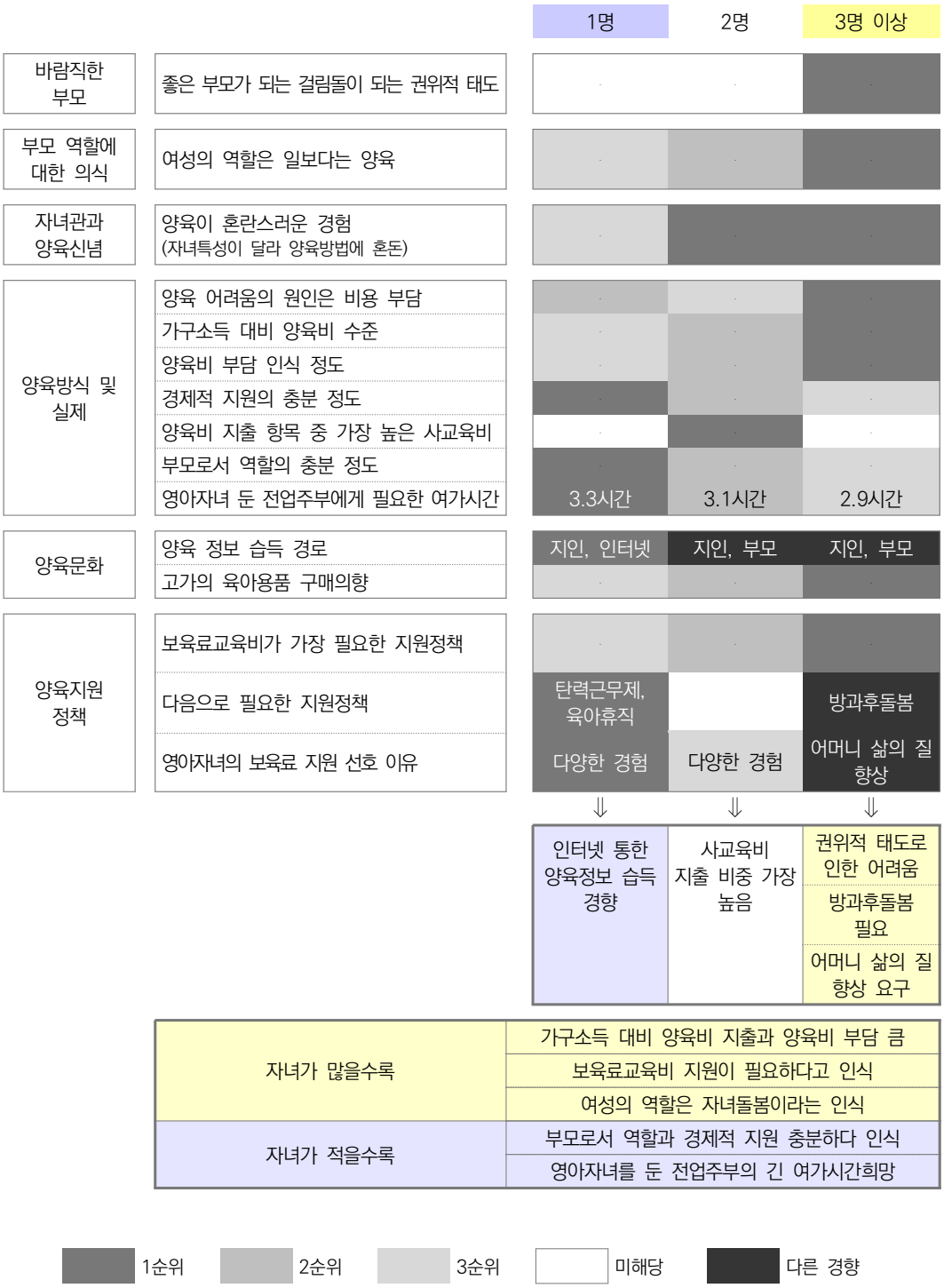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관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양육비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조사결과). 자녀를 셋 양육하는 집보다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자녀가 셋인 경우 세 자녀 모두에게 고루 교육비를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게 하거나 첫째 자녀 위주로 사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두 자녀 양육 시 비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두 자녀 모두에게 고루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양육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자녀를 하나 양육하는 부모보다 높은 편이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첫째와 다른 자녀의 특성을 경험한다던가, 첫째를 대상으로 사용하던 훈육 혹은 양육 방법이 둘째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 자녀수 3명 이상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과 양육비 부담이 큰 점이다. 자녀가 하나 혹은 둘인 경우에 비해 양육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의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이하게도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에 관대한 편이었는데, 한번 사면 여러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녀를 많이 양육하는 부모일수록 여성의 역할은 자녀 돌봄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자녀 3명 이상인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권위적 태도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성역할,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자녀수 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자녀수가 셋 이상인 경우에 실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녀가 하나 혹은 둘일 때보다 짧았는데, 이는 형제자매가 가정 내 양육자의 역할을 부모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간 터울이 클수록, 첫째 및 둘째가 막내의 양육자로서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Ⅳ. 자녀양육관의 변화

본 절에서는 2008년 실시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2008)'와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08년과 2016년의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2008년과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비교

가. 자녀에 대한 기대

아들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한 2008년과 2016년의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들이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에서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던 2008년(33.5%)의 결과와 달리 2016년에는 사회성(대인관계, 리더십)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37.3%)가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차이는 학업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08년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기대한 부모가 21.8%였던데 반해,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3%로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예체능적 자질(음악, 미술, 운동 등)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2008년에 1.8%인데 반해, 2016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2016년의 부모는 2008년의 부모에 비해 아들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리더십이 있길 기대하고 있었고,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분야의 능력(예체능적 자질)이 뛰어난 경우 이를 환영하고 그 부분을 더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아들(1순위)

단위: %(명)

구 분	사회성	성격, 태도	학업 능력	신체	예체능적 자질	계(수)
2016년	37.3	32.7	13.0	12.9	4.1	100.0 (912)
2008년	32.4	33.5	21.8	10.5	1.8	100.0 (2,357)

주: 2008년 자료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쉽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딸이 뛰어나길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에서도 2008년, 2016년 간 차이가 나타났다. 2008년에 딸이 뛰어나길 바라는 점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신체적 조건(용모, 키, 몸매 등)(28.4%)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꼽힌 것이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22.9%), 사회성(21.8%)이다. 2016년에는 신체적 조건과 성격 및 태도가 각각 31.3%와 31.2%로 2008년과 비교해볼 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딸이 예쁜 외모와 몸매, 큰 키 등 우월한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 등 적응력 좋은 성격과 태도를 갖추길 바라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졌다. 또 다른 변화는 2016년에 학업 능력을 1순위로 꼽은 부모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6.1% 감소한 점, 딸이 우수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부모의 비율역시 2008년 7.5%에서 2016년 5.1%로 줄어들은 점이다. 아들이 뛰어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비율은 2016년에 2008년보다 증가하였는데, 딸에게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딸(1순위)

단위: %(명)

구 분	신체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계(수)
2016년	31.3	31.2	19.1	13.2	5.1	100.0 (862)
2008년	28.4	22.9	21.8	19.3	7.5	100.0 (2,093)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쉽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나.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1) 부모주도성

2008년,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보다는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 역할을 더 강조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에 70%넘는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2008년에 비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부모 중심'의 양육보다는 '자녀 중심의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5〉 부모주도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계(수)
2016년	72.9	27.1	100.0 (1,013)
2008년	70.1	29.9	100.0 (3,747)

2)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 영향력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부모 비율이 2008년에 44.7%, 2016년에 57%로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을 포함하여 보면, 2008년에 조사응답자의 95.8%, 2016년 조사응답자의 98.1%가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이지만, 2016년의 부모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의 성장을 격려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표 6〉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 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계(수)
2016년	0.2	1.8	41.1	57.0	100.0 (1,013)
2008년	0.3	3.8	51.1	44.7	100.0 (3,747)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에 관한 부모들의 생각은 8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하였다. 2008년에는 '대학 입학 전까지', 혹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8%였는데, 2016년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로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하였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6년에 더 증가하여, 결혼 후에도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초혼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하고 장기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7〉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 경제적 지지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라도	계(수)
2016년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2008년	11.2	62.6	14.7	10.2	0.6	0.6	100.0 (3,747)

주: 2008년 조사에서는 '결혼 10년까지'로 응답한 값을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와 비교함.

3) 부모 역할 수행 평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8년에 자신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5.7%였으나, 2016년에는 26.7%로 감소하였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08년 19.8%, 2016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8년 조사의 부모들 보다 2016년 본 연구의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매우 충분함	계 (수)
2016년	2.4	21.5	49.4	23.5	3.2	100.0 (697)
2008년	1	18.8	44.6	31.8	3.9	100.0 (3,046)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값을 충분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음과 비교함.

부모 역할 중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08년, 2016년 변함없이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가장 많았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9〉 부모 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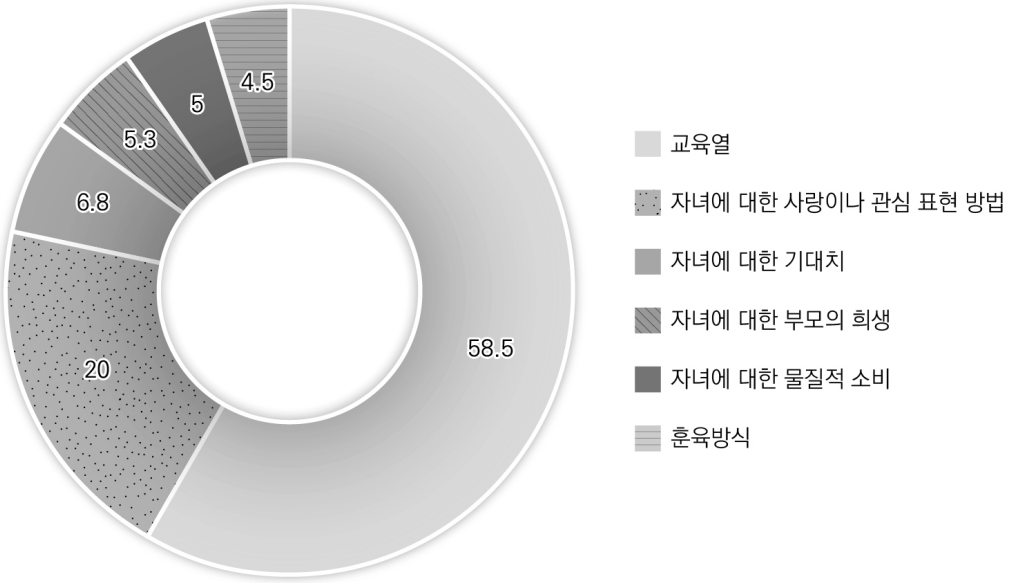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학업 지도	양육 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기타	계 (수)
2016년	46.1	18.6	12.6	11.4	9.6	1.8	100.0 (167)
2008년	46.4	17.1	13.6	-	21.0	1.9	100.0 (601)

주: 2008년 조사에서는 양육지식 항목이 없었음.

나.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님 세대의 양육 문화를 비교했을 때 변화하지 않은 점으로 응답자의 58.5%가 '교육열'을 꼽았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정은 양육 문화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양육문화에서 변하지 않은 점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 방법(20%), 부모의 희생(5.3%)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식에 대해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은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변하지 않은 점

〈표 11〉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현재 비교: 변화 없는 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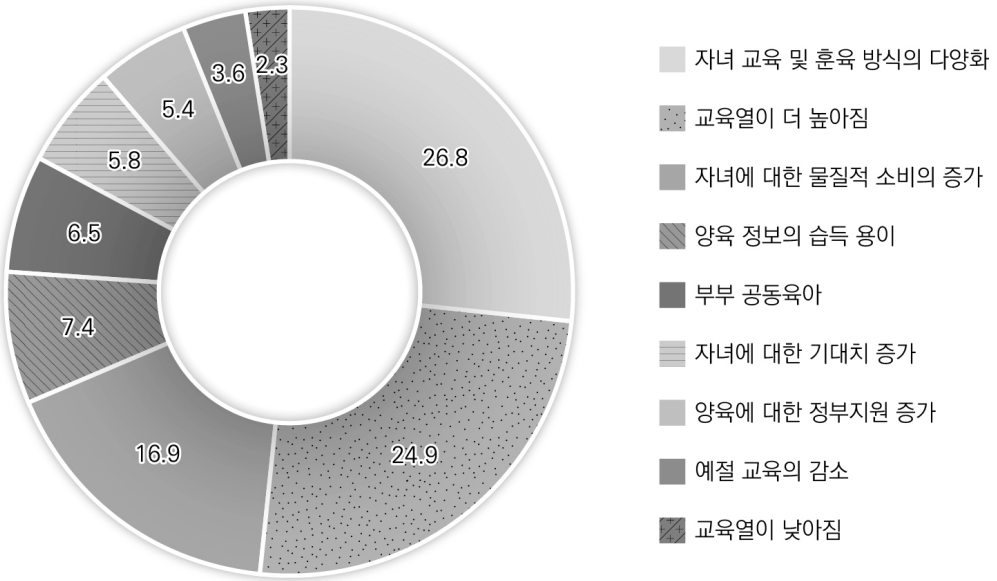
구 분	교육열	훈육 방식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방법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	계(수)
전체	58.5	4.5	20.0	5.0	6.8	5.3	100.0 (400)
성별							
여성	60.4	3.6	20.9	1.8	7.6	5.8	100.0 (225)
남성	56.0	5.7	18.9	9.1	5.7	4.6	100.0 (175)
$x^2(df)$	13(5)*						
연령대							
20대	66.7	-	8.3	16.7	8.3	-	100.0 (12)
30대	54.0	8.0	24.1	4.6	3.4	5.7	100.0 (87)
40대	60.9	3.0	20.7	4.1	5.9	5.3	100.0 (169)
50대	57.6	4.5	17.4	5.3	9.8	5.3	100.0 (132)
$x^2(df)$	14.3(15)						
자녀수							
1명	57.3	5.2	18.8	8.3	3.1	7.3	100.0 (96)
2명	58.7	4.2	20.1	4.2	7.6	5.3	100.0 (264)
3명 이상	60.0	5.0	22.5	2.5	10.0	-	100.0 (40)
$x^2(df)$	9.1(10)						
거주지역							
대도시	69.3	6.6	13.3	1.2	6.0	3.6	100.0 (166)
중소도시	53.5	1.6	21.4	8.0	8.0	7.5	100.0 (187)
읍면동	40.4	8.5	38.3	6.4	4.3	2.1	100.0 (47)
$x^2(df)$	38.3(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2.3	7.7	16.9	9.2	7.7	6.2	100.0 (65)
300~450만 미만	58.9	3.2	23.8	4.9	5.4	3.8	100.0 (185)
450~600만 미만	64.6	2.0	18.2	4.0	6.1	5.1	100.0 (99)
600만 이상	52.9	9.8	13.7	2.0	11.8	9.8	100.0 (51)
$x^2(df)$	19.7(15)						

* $p < .05$, *** $p < .001$

반면,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혹은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달라진 점으로는 자녀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26.8%)와 더욱 과열된 교육열(24.9%)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

았다. 매체의 발달을 통해 손쉽게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7.4%),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과 훈육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사교육을 제공하여 선행학습을 하거나, 특목고 진학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미리 준비시키는 등 과도한 교육열 양상은 현대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는 변하지 않은 양육문화 뿐만 아니라 변화한 양육 문화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과거에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려 노력하였으며, 교육적인 지지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를 위해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과거와 비교해볼 때 더욱 강화된 양육문화로 볼 수 있다(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증가=16.9%). 새롭게 등장한 변화로는 부부 공동육아(6.5%)를 꼽을 수 있는데, 2016년의 양육문화가 과거 보수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변화한 점

〈표 12〉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현재 비교: 변화한 점

단위: %(명)

구 분	교육열이 더 높아짐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	예절 교육의 감소	교육열이 낮아짐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증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 증가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	부부 공동육아	양육 정보의 습득 용이	기타	계(수)
전체	24.9	26.8	3.6	2.3	16.9	5.8	5.4	6.5	7.4	0.4	100.0 (555)
성별											
여성	25.4	26.8	3.4	1.4	18.2	6.2	4.8	7.6	5.8	0.3	100.0 (291)
남성	24.2	26.9	3.8	3.4	15.5	5.3	6.1	5.3	9.1	0.4	100.0 (264)
$x^2(df)$	6.8(9)										
연령대											
20대	20.0	20.0	-	-	20.0	13.3	-	20.0	6.7	-	100.0 (15)
30대	22.5	20.8	2.5	3.3	17.5	7.5	8.3	5.8	11.7	-	100.0 (120)
40대	30.8	30.8	2.9	1.4	13.9	5.3	4.3	4.3	6.3	-	100.0 (208)
50대	20.8	26.9	5.2	2.8	19.3	4.7	5.2	8.0	6.1	0.9	100.0 (212)
$x^2(df)$	33.7(27)										
자녀수											
1명	23.3	23.3	3.8	1.5	11.3	10.5	7.5	8.3	10.5	-	100.0 (133)
2명	25.3	26.9	3.6	2.8	18.3	4.2	5.3	5.8	7.2	0.6	100.0 (360)
3명 이상	25.8	33.9	3.2	1.6	21.0	4.8	1.6	6.5	1.6	-	100.0 (62)
$x^2(df)$	22.6(1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4	29.9	1.1	3.4	16.1	3.4	5.7	6.9	6.9	-	100.0 (87)
300~450만 미만	27.5	25.5	2.8	2.0	15.5	7.2	5.6	7.2	6.0	0.8	100.0 (251)
450~600만 미만	23.4	24.1	3.6	3.6	21.2	5.1	5.1	6.6	7.3	-	100.0 (137)
600만 이상	17.5	32.5	8.8	-	15.0	5.0	5.0	3.8	12.5	-	100.0 (80)
$x^2(df)$	19(18)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에 대한 제반 가치관을 성별, 세대별, 자녀 유무와 자녀수, 지역규모,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요한 특징을 추출하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2008년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 최혜선, 2008) 결과와 비교하여 자녀양육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조사에 응답한 한국인의 64.5%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나, 여성의 경우 없어도 된다(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43.3%) 때문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부모됨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나 경제적,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셋째,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초등자녀부터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넷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보다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다음이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역시 경제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자녀에게 부모로서 가르치고 싶은 가치로는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일에 대한 성취이며, 반면 가족을 위한 희생 및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여섯째, 부모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훈육하고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관대히 봐주어서는 안된다고 인식한다. 이는 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유자녀,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엄격한 훈육과 부모에의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적 성향이 강하다.

일곱째, 자녀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과거(2008년)에 비하여 훨씬 더 크게 인식하나, 부모역할 수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대학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로 더 긴 기간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여긴다.

여덟째,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보내는 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이 2배이상으로 많으며 특히 아버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주중 1일 평균 0.58시간, 주말 1일평균 1.85시간).

아홉째,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총 가구소득 대비 약 25%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사교육비로 소요된다. 약 60%의 응답부모들이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열 번째, 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부모는 쉽게 필요한 육아정보를 습득하며, 반면 과소비 문화를 조장하거나 넘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비전문적 육아지식이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한국부모는 좋은 부모의 우선적인 조건과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모두 '경제력'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며, 자녀의 자존감이 위축되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부모 자신이 자녀의 학습을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타인(학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교육 비용지원을 위하여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일에 투자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관계 및 소통이 약화되고 자녀 역시 제공된 비용으로 더 학업성취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구조로 악순환한다. 복잡다단한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시간과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간의 관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Ⅶ-1-1]와 같다.

경제력이외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경제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듯하다. 영국의 유명한 종단연구인 EPP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Education)(Sylva, et. al, 2007)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은 부모가 누구인가('Who you are')보다는 부모가 자녀와 무엇을 하느냐('What you do')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함께 시간보내기 등의 자녀와의 활동, 부모참여가 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자아 형성, 자아영역, 역할구조 등을 재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부모는 자녀의 학습능력이외에 예체능 및 자녀가 잘 할 수 있는, 자녀 재능과 꿈을 살려주고자 하며, 이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학습지원에 주력하지 않고 더 다양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첫 임신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가족과 사회적 지원없이 첫 임신과 첫 출산을 힘들게 경험한 여성과 가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게 된다. 따라서 첫 임신과 출산 과정을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system의 임신출산과 초기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와 이웃의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공동육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부모특성별 및 가족형태별 지원 방안 다양화

1)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아버지는 주로 주말에 자녀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기므로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여가시간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일반가정 아버지와 편부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주말 부모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어머니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시기부터 특히 중고등학생인 경우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로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낮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교육보육 서비스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전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으로써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할 수 있는 시간 및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3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부모 특히 전업주부는 길어진 양육기간으로 혼자만의 시간적 여유를 가장 원하므로 단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기관은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중 경제활동이 없으므로,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 생활고가 완화하기 위

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생활비를 보조해주거나, 현재 통상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주어지는 각종 할인혜택(예: 입장료, 기차운임비 등)을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 준비와 자녀와의 소통 및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를 우선시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에서는 주말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의 편견과 간섭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소 심리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친인척 지원체제, 개별상담 및 한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다.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극대화 및 문화인프라 확충

1) 미디어 활용을 통한 공신력있는 육아정보 제공 및 공공기관의 육아지원 서비스 홍보 극대화

젊은 세대, 여성, 한자녀 부모, 한부모는 특히 미디어(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네스 스마트폰 등) 활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므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신력 있는 육아정보와 최신 정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육아 지식과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부모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양방향의 환류체제를 갖추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제공된 정보의 유용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한 TV 예능 및 시사 프로그램(예: '유자식 상팔자', '아빠와 놀러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저명인사, 연예인들이 자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도서관 등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다둥이 카드 등 현존하는 지원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제대로 알린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육아지원 자원지도(resource map)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문화인프라 및 놀이공간 확충

자녀의 생활을 학습에 국한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및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위한 놀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자녀의 생활의 폭이 좁아지지 않도록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문화센터, 구청의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홍보하여 활용기회를 제공한다.

라. 생애주기별 및 실천중심 부모교육의 지속적 실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나아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으며, 부모교육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시기에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1단계),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됨과 관련된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한다(2단계). 예비부모나 출산 전 성인을 대상으로 양육 실제에 대한 정보로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한다(3단계).

실천 중심의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을 받고나서 각성하여 실천이 중요하나 작심삼일의 형태가 되므로 보다 효과적이 되려면 지속적,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의식을 지양하고 토론과 상담, 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과 영유아/초/중/고등학생 자녀 부모에게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부모교육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보다 심도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1절만 반복'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거부터 지속되는 또는 현재 새로이 부각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우리사회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05).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관계부처합동(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요약본).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2015 가족행복 더하기」.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아동정책기본계획(요약).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신정·김계숙·김영희(2007).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3-12.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문무경·장혜진·김혜원(2011).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박성연·박응임·한세영(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30(6), 15-28.

박영애·나종혜(200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애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87-301.

박현정·이기연·정익중(2013). 이혼한 한부모 아버지의 양육경험-가정이라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남자. 한국가족복지학, 41, 199-224.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최연실(2015). 한국가족의 변화: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최연실 외(2015).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13-41.

Holland, J. A., & Keizer, R. (2015). Family Attitudes and Fertility Timing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3), 259-285.

Oldershaw, L. (2002). *A National Survey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Executive Summary*. Invest in Kids.

Halpenny, A. M., Nixon, E., & Watson, D. (2010). *Parents' perspectives on parenting styles and disciplining children*. Dublin: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

Holland, J. A., & Keizer, R. (2015). Family Attitudes and Fertility Timing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3), 259-285.

Oldershaw, L. (2002). *A National Survey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Executive Summary*. Invest in Kids.

| 주제발표 2 |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2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2)]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1. 필요성 및 목적

인구절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구성원으로의 개인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은 개인 수준의 선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출산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녀의 출산은 오히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을 꿈꿀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 인식 및 가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육아문화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그 부담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육아에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개인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산율 회복을 이끌어 낸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화함을 통해 사회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개인 선택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그동안 정부는 보육을 비롯한 육아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육수당을 포함한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와 같은 서비스 지원, 시간

2) 본 원고는 권미경 외(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와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발간 예정).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함.

제보육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지원, 부모상담 및 교육, 건강 관련 지원 등 이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예산의 투입으로, 제도는 많은데 실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또한 지배적이다. 다면적인 육아지원정책은 이미 출생한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후속 출산으로 이어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결과로 표출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며 많은 진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제까지의 요구 대응적인 접근에서 멈추어 서서 육아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 용어를 차용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추수적 입장(追隨的)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수요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동적(推動的) 입장의 정책 방향성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정책의 접근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 수요자의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구성되어온 지원정책의 이용 현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지원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한 육아지원 개선 방안은 정책과 이용자 간 접근성 강화, 홍보 방안 등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육아 지원 요구와 육아지원 현황[3)]

가. 육아 어려움 내용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어 질문하였다. 1순위 응답 결과,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6.4%로 나타났다.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1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 보육과 잠깐의 휴식(refreshment) 제공에의 요구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에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3) 본 조사 결과는 2016년 7월 20일 ~ 8월 30일 사이 전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지원 정책 이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02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임.

〈표 1〉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43.7	12.7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16.4	21.0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11.0	19.8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3	15.5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5.5	6.0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4.4	10.6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4.1	4.7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3.7	9.2
기타	0.3	0.2
없음	0.5	0.2
계	100.0(1,302)	100.0(1281)

나. 육아 지원요구와 대안으로의 지원정책

현재 시행 중인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육아지원 요구와 그 대안,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양육 지원 요구	대안	제도화된 지원 정책
경제적 부담	조세감면 양육 비용 지원	세금 환급 제도 양육수당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파견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사업(종일제)
갑자기 맡길 곳 없음 내 시간이 없음	긴급 돌봄서비스 육아의 쉼표 Refreshment 기회	아이돌보미 사업(시간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혼자 키우는 어려움(독박육아)	가정 내 역할 분담 양육 경험의 공유	아버지 교육, 아버지 육아휴직 공동육아나눔터
공동 돌봄 공간, 장난감·도서 대여 등 필요	거점형 원스톱(one-stop) 양육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양육 자신감 부족 양육 관련 정보 필요	무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양육상담	무모교육 기회제공(대한민국 무모학교)
		임신출산육아 포털 운영(아이사랑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기반 맞춤 정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 보육맘)
맞벌이 가정 양육 및 돌봄 위한 시간 필요	일가정 양립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시간 단축 근로제

[그림 1] 육아지원 요구에 따른 대안과 제도

다. 육아지원 정책 인지, 이용 및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 정책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 정보제공, 물품지원, 건강 관련 지원, 거점센터를 통한 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그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 등 비용 지원 정책 중에는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용은 0~2세 보육료 지원에의 이용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이용만족도는 0~2세 보육료 지원(2.7점), 3~5세 누리과정 지원(2.6점), 가정양육 수당(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지원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을 제외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보육(일시보육)서비스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포함한다. 돌봄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일시보육)서비스 25.7%, 아이돌봄서비스 21.6%로 75~80%의 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정책이나 그 이용 비율은 7.1%와 6.8%에 그쳐 극히 낮은 상황이며, 이용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육아관련 지원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포털로 그 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여 다른 경우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4.6%이며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도 4점 척도 중 2.7점으로 '대체로 만족함(3점)'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현재 육아지원을 위한 실물을 제공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표적 정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물을 지원하는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이다. 이는 저소득층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월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이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유식 구매비용(월 8만6천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지 정도는 '모른다'는 비율이 47.8%,들어만 본 경우가 37.9%,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4.3% 정도였다. 보편지원이 아닌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 지원을 수혜한 경우는 2.5%이다.

영유아와 그 가정의 건강 관련 지원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6세 미만)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을 묶어서 그 이용 양상과 만족도 개선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정책 중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6세 미만)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의 인지 정도도 높고 이용 비율은 93%를 상회하였다. 그중 국가예방접종지원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함(3점)'에 준하는 정도로 높았다.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거

점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대표적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 거점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35.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67.2%로 높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9% 정도에 그쳐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 제도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20~30% 정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율이 2.7%로 매우 저조하다.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이용 만족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새롭게 찾을 정책이 없을 수준으로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용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황을 확인하였다.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은 영유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각의 미시적 정책 수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에서 퍼즐을 맞추듯 정책 간의 형평과 효율, 기능의 효율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에 주목해야함을 시사한다.

〈표 2〉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여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81.3	16.9	1.8	100.0(1,302)	66.9	(871)	2.4(0.73)
	0~2세 보육료 지원	72.0	23.0	5.1	100.0(1,302)	71.7	(935)	2.7(0.70)
	3~5세 누리과정 지원	66.5	28.9	4.7	100.0(1,302)	52.5	(774)	2.6(0.75)
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24.2	50.1	25.7	100.0(1,302)	7.1	(92)	2.2(0.90)
	아이돌봄서비스	22.3	56.2	21.6	100.0(1,302)	6.8	(89)	2.5(0.74)
정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49.6	29.6	20.8	100.0(1,302)	54.6	(711)	2.7(0.56)
물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4.3	37.9	47.8	100.0(1,302)	2.5	(34)	2.8(0.88)
건강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2.7	37.6	39.8	100.0(1,302)	12.6	(165)	2.8(0.72)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90.5	6.7	2.8	100.0(1,302)	93.0	(1,211)	2.6(0.72)
	국가예방접종지원	87.6	9.6	2.8	100.0(1,302)	93.6	(1,218)	3.1(0.55)
거점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26.9	37.3	35.8	100.0(1,302)	22.8	(297)	2.9(0.62)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9	25.8	67.2	100.0(1,302)	3.2	(42)	2.7(0.75)
일·가정 양립	출산 전·후 휴가	58.4	32.6	9.0	100.0(1,302)	41.8	(544)	2.8(0.74)
	배우자 출산휴가	51.6	39.7	8.7	100.0(1,302)	36.6	(477)	2.5(0.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2.0	46.5	31.5	100.0(1,302)	2.7	(35)	2.7(0.80)
	육아휴직제도	41.2	38.1	20.7	100.0(1,302)	23.2	(302)	2.7(0.83)

라.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현재 육아지원정책들 중 필요성, 만족, 개선필요가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가 〈표 3〉으로 제시하였다. 지원정책 중 필요로 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모두 비용지원 정책이라는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주된 관심이 비용지원 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운용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지만, 지원 확대와 비용지원 상향 조정으로 수렴되는 정책수요자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양육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과 입안, 제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온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즉, 정책수요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정책적 접근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요구가 감소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에 육아지원이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양육의 가치, 부모-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 전환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 육아지원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제도

단위: %(명)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정보 ·교육 지원	건강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필요도 높은 제도	59.8	19.0	11.8	3.9	2.6	1.9	1.1	100.0(1,302)
만족도 높은 제도	43.7	38.3	7.1	4.5	3.5	1.5	1.3	100.0(1,302)
개선 필요 제도	47.3	21.9	18.2	4.4	4.0	2.2	2.1	100.0(1,302)

3. 육아지원 정책에의 평가[4)]

가. 지원정책 평가에의 동의 정도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된 다음의 진술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질의하였다. 그

4) 본 조사 결과는 2016년 7월 20일 ~ 8월 30일 사이 전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지원 정책 이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02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임.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체로 그렇다(3점)'에 달하는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문항은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보다 더 늘려가야 한다(3.1점)' 이었다.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속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2.5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어머니들은 정부가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2.6점)도 비교적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술에는 1.7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여 출산장려책으로의 육아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들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진술에도 1.8점으로 낮은 동의를 보여 필요한 부모에게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2점)는 점에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수준의 동의를 보여 정책의 안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표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맥락이 아닌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표 4〉육아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정부는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6(0.77)
2)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은 부모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2.1(0.70)
3)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	2.0(0.66)
4) 이용해 본 육아지원정책들은 부모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	2.1(0.65)
5)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은 필요 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1.8(0.63)
6)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이다.	1.7(0.75)
7)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이 최근 발전했음을 체감한다.	2.2(0.81)
8) 육아지원정책은 현재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나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2.1(0.73)
9)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 보다 더 늘려가야 한다.	3.3(0.77)
10)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2.5(0.84)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임.

나. 육아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공 중인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순위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방안은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양육수당 지원(37.5%)'이고 그다음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 추진(15.7%)', '영아는 부모가 가정 내 양육, 유아는 기관 이용 지원 활성화(14.6%)',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10.8%)',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강화(8.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나 부모들의 면담에서도 누구나 다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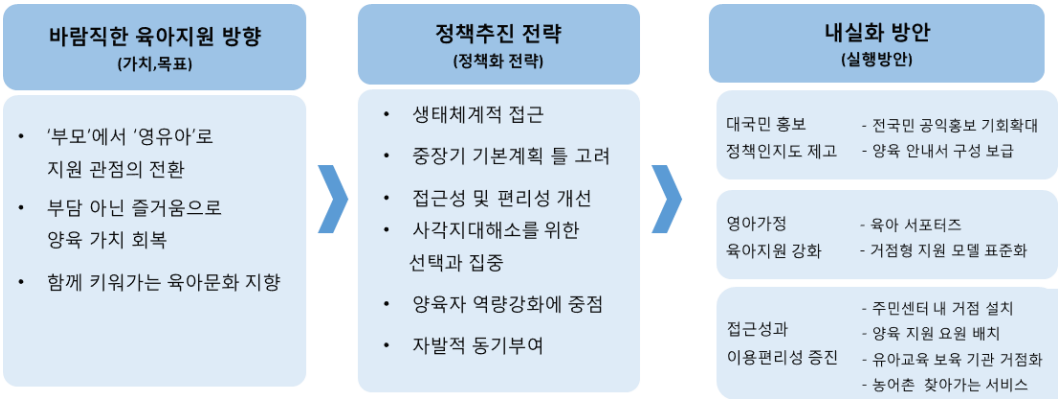
〈표 5〉육아지원 정책 개선 방안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37.5	17.5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15.7	6.3
영아는 가정 내 양육, 유아는 기관이용 유도	14.6	11.8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10.8	17.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8.4	14.1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2	9.8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스톱 안내	2.6	6.7
출산/양육지원/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2.2	5.3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 (면대면/전화/문자 등)	1.8	4.3
부모교육 기회 확대	1.6	4.3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1.2	2.2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0.3	1.4
계	1,302	

4. 육아지원개선 방안

무엇보다 바람직한 육아지원이 어떠한 시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지원의 목표 및 가치를 명료화하는 추동적 입장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전문가 의견수렴의 결과를 종합하여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시각에서 지원 정책화를 위한 전략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대국민 홍보강화, 영아가정지원강화,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증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2] 육아지원 개선 방안 개념도

가. 바람직한 육아지원에의 방향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와 그에 따른 다분히 대중 추수적 입장에서 마련되어 온 지원 정책에의 한계를 마주하며, 바람직한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타진과 가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발적인 요구 대응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의 요구가 높다. 공유된 가치, 관점은 추상적이지만 정책의 기저에 작용하여 정책 목표 설정과 방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그 특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수렴되었다.

■ '부모'에서 '영유아'로 지원 관점의 전환

육아지원에의 접근이 이제까지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성인, 주로 어머니의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두어 온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양육'이 영유아를 길러내는 과정임을 재인식하며 '양육지원', '육아지원'의 관점을 '성인, 어머니'가 아닌 '영유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

의 관점이 부모의 편의보다는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한다는 것이다. 양육자의 불편 해소, 부담 완화 보다는 영유아기 이 시기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가정의 양육 상황이 마치 퍼즐 조각 맞추어 지듯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영유아가 보내게 되는 시간과 그 상호작용의 질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영유아가 누리게 될 돌봄의 수준'이 정책의 목표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 제발 목표 좀 정하자. 목표는 아이고, 아이 시간이 진리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는데...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제일 먼저라는 거죠(학계 교수 C).

> 우리가 양육 지원을 어떻게 할거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부모는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조합이 다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서 적절히 찾아지겠지(학계 교수 C).

■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의 양육 가치 회복

양육은 분명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오는 즐거움과 그에 수반되는 돌봄, 지원에이 어려움을 지닌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영유아 부모들은 양육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게 인지하며 스스로의 역량감 또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양육 = 부담, 어려움'으로 연상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양육 = 즐거움, 행복함, 보람'으로 변화되도록 양육 가치의 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가야한다.

> 육아가 곧 비용이고 비용이 곧 부담이고 그래서 이게 부모들한테 짐이 된다는 인식을 바꿔서 육아 equal 보람이 되고 이게 가정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 나오면 그거 마다 바로 한명을 키우는데 돈이 2억이 든다 1억이 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학계 교수 E).

부모, 양육 또는 모성(母性)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치 양육을 전담함은 사회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일로 '집에서 애나 키우냐' 는 식으로 가치 절하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 우리가 아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들의 엄마들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너는 나처럼 집에서 묵지 말고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해라. 이 메세지를 완전히 질리도록 받고 자란 세대가 사실은 지금 어머니 세대인 것 같아요. (학계 교수 H)

> 뭐랄까 엄마가 애보고 있으면 집에서 노는 엄마, 아버지가 따라오면 저 아버지는 짤렸나 봐, 실업자인가 봐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정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그런 암묵적인...(학계 교수 H)

양육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가야 한다. '양육'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다시하기 어려운 경험임에 분명하다.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양육지원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녀를 기르는 다시하기 힘든 행복을 부모가 오롯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부모됨이라던지 부모의 역할 그런 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 부모교육이라던지 부모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기관에서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결국은 기관이나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보조자로서 이거를 넘어서 부모권 이런 거에 대해서...(학계 교수 E).

> 육아가 부모의 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0-2세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에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걸으면 기적 아닙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말하고. 부모가 그 기적의 순간에 있어야지...사실 예쁜 짓을 하는걸 봐야 그 애가 미운 짓을 하는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학계 교수 F).

■ '함께' 키워가는 양육 문화 지향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그 과정을 국가와 사회는 더불어 협력하고 지원해간다.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아닌 부모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를 사회 안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때이다. 양육에 지친, 독박육아로 표현될 만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영유아 부모에게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양육함'이 개인 수준이나 개별가정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업이며, 그러기에 부모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과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함께 키우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와 그 가정, 가정이 속한 확대가족과 지역사회, 이웃, 양육지원 제도와 그 법적 기초,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총체적인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 엄마들은 자꾸 돈을 요구한다,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 아이를 못 기르겠어서 보육시설을 늘려야한다 이런 패러다임 접근 자체를 조정할 때가 됐어요.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숨어있었던 양육 어려움의 근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문화적인 것이든 사회 분위기든(학계 교수 H).

왜 아버지는 양육을 지원해야 되고 엄마는 양육을 담당해야 되냐. 이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담당해야 되는데 가사도 남편은 도와주는 거고 여자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 변화가 사실 많이 되긴 했지만 더 되어야 하는 거야(학계 교수 D).

프랑스에서 애를 가지면 국가가 처음에 편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의 임신을 축하한다.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원해주겠다.' 는 말이 있는 거야. 함께 키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국가가 뒤에서 지원을 한다 함께 키운다 하는데...(학계 교수 E).

이상에서 바람직한 육아지원의 추동적 방향성으로 제시한 '영유아' 중심의 지원관점의 변화, '양육 즐거움'으로의 양육 가치 회복, 더불어 키워가는 양육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나. 추진 전략

■ 생태체계적 접근

육아지원은 영유아와 그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환경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생태체계적 맥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육아지원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까지 '더불어 함께 키워간다'는 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육아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시체계 수준에서는 먼저 단위 가정 내 양육환경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버지, 조부모 등 가족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간체계 수준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도적 개입을 동기화해야 한다. 외체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의 연계 활성화, 효율화를 도모한다. 육아지원을 위한 온라인 거점과 오프라인 거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거시체계 수준은 양육 친화적 가치 확산, 사회문화의 조성을 뜻한다. 무엇보다 추동적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는 영유아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생명 존중의 문화 형성, 가족 친화 또는 양육 친화적 사회문화 형성, 건강한 양육가치 재정립 등 가치의 회복은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수반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개선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정책 중 인지도 또는 만족도가 낮은 정책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지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의 안내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와 수요자인 영유아 가정을 연계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지 모르는 부모에게 쉽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주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접근 등으로 영유아의 연령 특성,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육아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되더라도 늘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역량도 낮은 취약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녀연령으로는 12개월 이전의 영영아 자녀를 둔 집단, 소득수준으로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는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요약된다. 육아지원 개선을 위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보편적 제도 마련으로 육아지원의 토대를 다지고 기본을 마련하였다면 이들을 위한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특화된 지원은 실제적인 양육 취약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 양육자 역량 강화에 중점

육아지원의 방향이 비용보다는 양육의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량강화에 모아져야한다.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녀 양육자로의 신념, 가치관 공유, 이를 위해 자녀 발달 지원 주체로의 부모 정체성, 부모 권리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은 감소시키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 역량 강화는 자녀의 출생과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비용 지원의 확대를 차치하고라도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혁이나 신규 제도의 도입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접근을 뛰어넘어 양육의 중요성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유휴자원의 활용과 민간 주도적 접근을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현재 공동육아에서 부분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 주도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동기화를 위한 불씨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 육아지원개선 실행 방안

1)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 제고

정부는 육아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들은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이용해 본 비율도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홍보가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건(關鍵)임을 의미한다.

■ 전 국민 대상 공익 홍보 기회 확대

연구에서 제시하고 추구하는 정책 추동성의 핵심은 전 국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달려 있다.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지원, 양육의 행복 및 가치의 회복, 함께 더불어 키워가는 사회,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관련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양육 지원에 제공되어도 접근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취약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공익홍보의 내용으로는 영유아기의 상호작용과 애착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아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유, 사교육이 아닌 놀이의 중요성,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등 쉽게 간과되고 있는 영유아기 발달과 인성 형성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담겨야한다.

■ TV 등 쉽게 접하는 매체를 이용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여론화하려면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원정책의 홍보를 위해서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나 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무엇보다 공익 홍보 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이고 감동적인 터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초원의 집을 어려서 보면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 가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가정의 이미

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서 주는 일종의 낙인 효과죠. 아 가정은 저렇게 하는 거고 아빠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잔잔한 행복감을 주는 모델을 보여주는...(학계 교수 E).

최근 양육관련 프로그램, 아버지 양육참여 프로그램 등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람직한 양육 모델, 지원 정책의 이용 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방송 등 채널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양육 지원사업의 내용과 현장을 소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TV 프로그램의 제작진들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지닌 매체 운영진을 대상으로 양육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은 학계 전문가들이 담당하여야한다. 또한 제작과정에 자문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공공건물의 대형 전광판 및 버스나 지하철 광고

공공건물에의 전광판이나 외벽, 버스와 지하철의 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양육 친화적 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금연의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양육이 가치 있고 행복하며, 보람된 일이라는 것과 그러한 부모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있음에 대해 공공건물의 대형 전광판 및 버스나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강조하자는 것이다. 그 실행 시 중요한 점은 공익광고가 지닐 수 있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미지를 벗어나 일반광고와 같은 참신하고 감동이 있게 구성하는 기획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 대중 인지도가 높은 검색 포털 활용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양육지원을 위해 강조하며 확장해 온 다양한 거점형 센터나 지원 사업 등의 대한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등에서도 양육지원 사업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통로에도 기본적인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 역량이 낮은 집단, 관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그 이용마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대중들의 이용이 보편적인 네이

버(Naver), 다음(Daum) 등과 같이 일반적 인지도가 높은 통로를 이용하여 양육지원정책과 사업을 안내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지역마다 육아정보에 대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 먼저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 부모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더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정보를 나누고, 중고물품을 나누고, 어려움과 경험을 나눈다. 그러나 운영자가 이 카페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선별적 접근을 요한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 검색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영유아 부모의 이용이 빈번하고 인기가 있는 지역맘 카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와 지원 정책의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는 것은 정책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

정부에서 보육사업안내를 매년 발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를 안내하듯이 부모를 위한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발달에 맞는 양육지침서, 연령별 놀이 활동 지침서, 정책 안내서를 구성하여 제공하자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최근 영유아와 그 부모 대상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한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책수요자에게 정책의 변화와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은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공통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화사업이나 양육관련 정보를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보완하는 방법[5]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6년 EBS와 협동으로 육아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를 추진하면서 연령별, 정책부분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담은 '정부 육아지원 정책안내'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음을 고려할 때 국가 수준

5)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영유아 부모가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구성 제공한다.

의 양육 안내서 발간은 적극적인 홍보 방안인 동시에 정책의 접근성 증진에 효과적 방법으로 사료된다.

■ 효과적 보급방안 및 활용방안

지자체 특화 사업에 대한 안내 추가, 예산 등의 문제로 발간 보급이 어려우면 PDF 파일로 공유 가능하도록 아이사랑포털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자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양육안내서는 부모교육 시 보조적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연령별 놀이 활동 지침서에 있는 일부 놀이들을 이후 본 보고서에서 제의하는 '영유아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양육전문가의 지도로 부모와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경험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2) 영아가정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본 연구 결과 정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가) 사업목적

영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은 그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큰 시기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발달전문가가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의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로 인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덜고 부모 간 정보의 교류도 가능하도록 함이다.

나) 사업 내용

이는 이스라엘 팁-태프 센터와 유사한 영유아 부모양육 직접 지원센터를 의미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마땅히 육아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영아기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지내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배치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아와 그 부모를 위한 공간 구성 시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보다는 영아와 부모에게 적합하게 안전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 곳들도 있으나 차이점은 발달전문가가 상시 근무하여 영아 부모의 상호작용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공간은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이용한다.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하고 예약을 받아 운용한다. 필요하다면 부모의 자부담으로 하거나 지자체의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추진 방법

영아 양육지원 센터에서 제공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간 모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초점은 영아 자녀와 편안하게 지내면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자 스스로도 부담을 완화하는 부모의 역량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사업성 과제의 형태로 영아 양육지원 센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박람회 등 일반 부모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사업을 개최한다. 특히 대상 부모는 영아를 키우고 떠나가며 새로운 부모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중 지원을 받아 '영아 양육지원 센터'를 시범적으로 개소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 운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 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영아 양육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설치공간은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유휴 교실 또는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안적 접근으로 초기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운용을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 아파트 주민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육아서포터즈 사업: 가천대 세살마을 사업 확산 방안

가) 사업목적

영영아 및 영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기본적인 부모교육과 안내, 발달 상황에 맞는 안

내와 놀이지도 등을 육아서포터즈가 방문 제공하여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양육역량 및 자신감 회복뿐 아니라,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 방문으로 양육자와 육아서포터즈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영유아와 그 부모, 그 속한 지역사회, 학계 전문가, 후원자로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육아경험을 지닌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로 선발하는 육아서포터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나) 사업 내용

이는 기본적으로 가천대학교의 세살마을 사업 모형을 토대로 한다.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자신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임산부 예비 부모교육부터 자녀가 두 돌에 이르기까지 발달과 상담 등 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육아서포터즈'가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3개월 경,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 6회의 연속성을 지닌 지원을 기획한다. 지원을 받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출이 어려운 영아 시기는 육아서포터즈가 가정을 방문의 형태로, 예비부모교육과 18개월, 24개월에는 함께 모여 하는 집체교육의 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양육에의 정보제공, 놀이방법, 육아기술에 대한 교육제공 및 실제 양육 상황에서의 코칭, 양육자 건강상태 스트레스 지수 확인 등 각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안내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사례와 양육 상담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현재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은 무료로 제공되나 사업이 전국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부모의 책임감도 높아질 수 있다.

다) 추진 방법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살마을 사업을 기획한다. 후원체(기업), 지원체(세살마을 연구진), 운영체(지자체)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그 세 주체의 구체적 역할을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체인 지자체는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을 독려하여 운영 자금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제적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의 안내와 홍보, 또 교육대상자의 모집을 담당한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이나 18개월, 24개월 교육 시 교육장소를 제공한다. 6회기의 부모교육 이후 함께 교육받은 부모 간에 자발적 소모임이 형성되도록 동기화 한다.

지원체인 전문가로서의 학계 역할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아서포터즈의 교육이다. 기본적

으로 가천대학교의 세살마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가천대의 현재 사업모델을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총 6회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에 육아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역량 있는 육아서포터즈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영아기 양육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업의 참여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후원하는 기업의 세금 우대나 지역 내 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정책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 방안

정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접점 강화 방안을 고려한다. 주민센터에 '미래인적 자원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 및 '육아지원요원' 배치를 제안한다. 또한 전국에 촘촘하게 확산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육아지원 거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주민센터 내 육아지원 거점 설치 방안

가) 사업목적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그 부모가 와서 자연스럽게 육아경험을 공유하고, 육아품앗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수가 충분하지 못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육아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핵가족화와 이웃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다.

나) 사업내용

주민센터 양육지원 거점을 통해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그 부모가 이용 가능한 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놀이그룹(play group)의 운영이나 부모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모모임(자조모임 및 품앗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한다. 육아용품(유축기, 카시트, 유모차, 도서, 놀이감 또는 기타 양육 용품)의 대여 및 연계 서비스를 운용할 수도 있다.

다) 추진방법

시설규모가 큰 것보다 거주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접성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센터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그곳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상설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면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할 수도 있다.

■ ‘육아지원요원’ 주민센터 배치 방안

가) 사업목적

영유아 자녀를 둔 정책의 수요자에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육아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이용 신청까지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 사업내용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상근하는 ‘육아지원요원’은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신청까지 지원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안내 홍보하며, 지자체 내의 영유아 놀이 공간, 병의원, 예방접종 장소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간단한 양육 상담도 실시한다. 주민센터 내 육아지원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육아지원요원’이 이를 관리 및 운용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 호주의 복지 종합 전달체인 ‘센터링크‘의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출생 신고 시부터 그 역할을 담당한다.

다) 추진방법

육아지원 정책 및 정보에의 안내자인 가칭 ‘육아지원요원’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정한다. ‘육아지원요원’의 자격은 양육 경험이 있고,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지닌 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의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영유아발달과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육아지원요원’의 선발과 교육, 배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로 운용한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상세 운영방안 및 매뉴얼, 근무 인력의 자격 및 교육내용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육아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독일의 패밀리센터,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국에 어린

이집이 약 4만 2천여 개, 유치원은 8천여 개가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양육에의 전문성을 지닌 원장과 교사가 있어 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에의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가능하다. 국가가 마련하고자하는 '대한민국 부모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전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제공함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별 안내서와 인근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제도, 장소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배부하여 부모 안내 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 또는 재교육 시 이를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 참 고 문 헌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6-01.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발간 예정).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6-08.

토론

좌장: 제 경 숙 교수(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토론: 홍 승 아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김 혜 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김 수 완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우 석 진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토론 1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홍 승 아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저출산시대 자녀양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음. 경제위기와 피로사회, 혹은 과로사회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생존마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가족과 자녀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연령대 시대로 접어들었음(통계청, 2015)
- 가족형성의 지연은 만산, 출산 포기, 출산의 최소화 등 저출산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됨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양육관에 주목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응정책이 주로 고용, 일가정양립, 주거 등에 집중되어 왔던 반면, 사실 우리의 가치나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많이 없었음. 우리사회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본 연구의 "의도적 무자녀부부"와 같이 사실 자녀에 대한 가치는 매우 상대적인 가치로 변하고 있음

- 이제까지 자녀양육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한 반면,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와 현재의 부모됨 의식, 자녀양육 가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임

○ 사실 만혼, 만산, 비혼출산율의 증가, 무자녀 부부 등 가족형성 및 가족유형의 변화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OECD, 2011: 23~29).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 초혼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0.8세이며, 스웨덴의 경우에도 각각 35.7세, 33세로 나타나는데 반해 합계출산율은 각각 1.98과 1.88임

○ 무엇이 문제인가?

-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의미
- 개인의 재생산 결정,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자녀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규범, 가치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미래세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Ellingsaeter, Jensen and Lie (2013).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2. 젠더, 세대, 자녀수별 자녀양육관

○ 여성과 남성의 자녀양육관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웠음. 여전히 남성은 본인의 역할을 '경제적 지원자'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또 하나의 깨뜨리기 어려운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됨. 이것은 아마도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고수하고 있는 생계부양자에 대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임.

- 반면 주말 양육참여가 보편화된다는 발견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주말의 가족생활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연결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중에도 가족시간 부족문제가 남성의 양육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음. 절대적인 시간부족의 문제는 다시 장시간근로 문화 해소의 문제를 짚을 수 있겠음
- 여성은 여전히 자녀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남. 시간부담,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을 이겨내는 인내심, 교육 매니저 역할, 양육정보 수집자로서의 모습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역할의 모습이지만, 취업주부 역시 이 역할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임.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위기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양육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가정주부"의 역할분담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시에 분명 이러한 역할분담의 균열현상도 발견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서 여성이 양성평등한 일가정양립을 원하는 fact는 이러한 역할분담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짚을 수 있음

○ 세대별 자녀양육관에서는 20대가 보다 동등한 양육자로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도 많고, 능동적인 양육정보 수집의 특성을 보인 반면, 30대, 40대는 양육비 부담이 큰 세대로서 정보습득에 익숙하면서 현재 국가지원의 양육지원정책의 수혜층으로서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음

○ 자녀수별 자녀양육관에서는 다양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나 정책지원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수별 차별적인 지원욕구가 명확히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자녀가 적을수록 긴 여가시간을 희망하기보다는 자녀수* 자녀연령에 따른 지원욕구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의 돌봄자 역할에 대한 동의도가 높다는 것은 또다른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됨

3. 자녀양육관의 변화

○ 2008년과 2016년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된 부분은 부모중심의 양육보다는 자녀중심의 양육을 강조하고, 부모의 자녀성장 지원에 대한 기한이 더 연장되었고, 부모역할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나는 등 오히려 부모역할에 대한 욕구와 부담은 더 늘어났음.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우선, 가족정책이 자녀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혼 등의 부모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중심의 복지와 정책의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측면임(호주, 영국 등)
- 청년층의 부모세대 독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역시 유사함. 영국에서는 '캥거루 가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토론 2

아버지참여, 양식(養殖) 보다 자연산(自然産)으로!

김 혜 준 대표((사)함께하는아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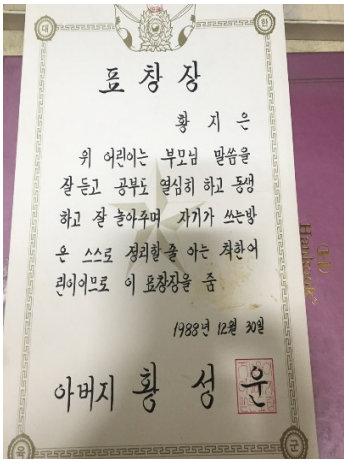
1) (사)함께하는아버지들 소개

토론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대해 소개함

- Help & Make : 아버지들이 더 행복하게 아버지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통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 아버지 3.0
- 주요 활동

"아빠는 딸의 그늘이다"

"지은이 아빠가 만든 도장"



"눈빛 대화"

제1회 아빠자랑대회

2) 토론의 관점(stance)

❍ 저출산극복 – 일가정양립 – 아버지 참여

– fathering에 초점

❍ 현장 & 수요자

3) 문제의식 : 소외 & 혼란

❍ 소외 : 방식

– 미시적 : maternal gate-keeping ("억끌파", "끌남모")

– 거시적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 관계부처 합동)

❍ 혼란 : 내용

– 3단 허들 : 일가정양립, 엄마 장벽, 아버지의 정체성*(역할&가치)

– 부성 & 모성의 차이 부정 : "마더하세요"

– 뭔가 몸에 맞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다는 느낌

4) 개선 방향

❍ not only 교육 but 운동

– '양식' 지원보다 '자연산의 서식환경' 조성 및 지원이 더욱 중요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 p59

> **3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여가부)
>
> - 아빠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각자의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상호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육아 참여 유도
> - '꽃보다 아빠', '100인의 아빠단' 등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남성들의 성공사례 공유·확산
>
> ○ **남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고용부, 여가부)
>
> - 노사단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운동 확산
> - 매달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공모하여 별도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 남성들의 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 시상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부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컨텐츠 마련

3 한계와 향후과제

□ 취약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필요

○ 기존의 가족정책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족 대상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접근으로 보편적인 가족문제(자녀 양육, 가족관계 증진 등)에 대한 정책은 부족

○ 취약가족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정책에서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의 확대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미흡

○ 자녀 양육, 육아·가사 분담 등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정책적 지원 필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실천이 어려우며, 특히 남성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

○ 장시간 근로관행, 경직적인 조직문화가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움

○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남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가족해체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른 가족 유대감 약화, 소통 단절 등의 문제 발생

○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족해체 예방 필요

발언대

'좋은 아빠'보다는 '웃는 아빠'를

김 혜 준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작년 여름 일본의 아버지단체 '파더링 저팬(Fathering Japan)'을 방문했다. 단체의 슬로건이 흥미로웠다. '웃는 아버지가 일본을 살린다!' 웃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

수능을 마친 고3 교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학생들은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시한부 삶이라는 무거움 속에서도 아이들 특유의 자유로움이 튀어나온 것이다. 갑자기 교실 조명이 꺼지면서 스크린에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해서 눈과 귀를 모은다. 같은 질문을 받은 화면 속 아버지들은 예외 없이 5억원을 선택한다. 남은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 학생들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가장(家長),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다. 가족을 위한 무한 희생이 준비된 전형적인 '좋은 아버지'들이다. 동영상을 보며 나도 눈은 그렁그렁해졌지만 100% 공감하진 못했다. 난 꿈을 택했을 테니까. 아내가 들으면 이기적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거나 말거나 "돈이 아닌 그 무엇으로 남은 1년을 채우는 것이 나와 가족을 위해 더 가치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전 어느 간담회에서 배우 정은표씨를 만났다. 그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일하러 간다"고 하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빠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라고 바로잡곤 한단다. 이것이 늘 즐겁게 일하고, 언제나 아빠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원천이라고 했다. '파더링 저팬'에서 말하는 그 '웃는 아빠'의 모습이다.

생각해보면 '좋은 아빠' 되기는 쉽지 않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좋은 아빠'란 것도 '이런저런 쓸모' 혹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정해지기 십상이다. 반면 '웃는 아빠'는 되기 쉽다.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무엇보다도 웃는 아빠와 가족은 자연스레 같이 웃게 된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웃는 아빠'가 중요한 것 아닐까.

토론 3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

김 수 완 교수(강남대학교)

1.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 방향 설정에의 공감

본 발표는 “개인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은 개인 수준의 선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출산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문제제기를 던지면서,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매학기 동일한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 비슷한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즉 “저출산은 사회문제” 그러나 “나는 결혼/출산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2/3 이상의 생각인 것이다. 그 이유는 “굳이 양보/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다수이다. 그만큼 결혼과 그로 인한 가족생활과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약하는 ‘부담’과 구속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양육 과정에서도 출산과 육아가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고립된 양육과정이 가져오는 육아 스트레스, 개별 가족의 사적 투자와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즉 높은 사교육비용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끝없는 정보 및 소비 경쟁을 통한 구분 짓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확한 정책 패러다임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에서 ‘누가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발표문의 육아 지원 요구/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a) 본 발표에서 분석한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지적할 만한 현상은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의 요구 사이에 큰 불일치(mismatch)'이다. 육아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긴급보육과 휴식제공,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높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은 돌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강화일 것이다. 반면 막상 육아지원정책에의 요구에서는 "비용지원"에 대한 필요성, 만족도, 개선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왜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일까? 한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비용지원제도(양육수당, 0-2세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지원)는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잘 알려진 제도라는 점이다. 반면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이나 돌봄지원(시간보육,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낮고, 이용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p.6 표 2 참조).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제도일수록(즉 수급자가 다수일수록) 그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높아진다는 복지정치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제도인 물품지원에 대해 인지도와 이용률 그리고 필요성이 모두 낮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전략의 우선적인 방향은 일가정양립정책/돌봄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 및 이용율 향상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왜 낮은지도 우선 파악되어야 한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가 긍정적인 답변에 가깝게 나온 것(2.5/4점척도)도 고무적인 사실이다.

(b)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황과, 제시하고 있는 육아지원개선방안 간에서도 또하나의 불일치가 엿보인다. 현재 제시된 현황 및 인식을 통해서는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결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분석결과 양육정보·교육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만족도·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왔는데, 영아가정 육아지원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거점형 영아양육지원센터 설치, 육아지원요원(정보제공자) 배치 등을

제안하는 것은 근거기반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특히 후자)(p.2 표2) 또다른 지원센터의 제안보다는 기존 센터의 실효성 진단과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 이 연구의 정책제언을 보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의 핵심은 '전문가와 개별양육자' 간의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접근방향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의 핵심은 육아공동체 혹은 육아네트워크 강화, 가족 내에서의 균형적인 육아문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d) 이 연구의 후속으로서 아래의 주제들이 다뤄질 것을 제안한다.

- 영유아기 자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육아관련 현황 및 요구 조사 (아버지 관점)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함께하는 육아문화의 사례 발굴 : 공동육아의 모델 사례 (성공/실패사례),
- 양육지원 활용에 대한 가족맞춤형 표준화 모델 사례 제시 (eg. 임신출산육아포털 이용 + 맞벌이부모의 육아휴직(아버지의 달) 혹은 육아기 시간단축근로 + 시간제 보육서비스 + 가정지원센터이용 등)

3. 함께 하는 육아문화: 가족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6)]

얼마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거의 빠짐없이 나열되었다. 여기에는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서 이민 정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실로 전방위적인 칵테일 처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세 번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동안, 저출산의 해결이 한국 사회의 핵심과제라는 문제인식만큼은 확실히 공유된 듯하다. 기존에 저출산의 해결책이 '양육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추진된데 비해, 이번에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인 만혼과 비혼의 심화에 주목하려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 해결책에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에 필요한 예산마련의 구체성 부재나 주거정책 등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더해, 일각에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메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의 부족'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더 긴 정책 리스트가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많은 중요한 정책들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이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정책분야의 대가인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는 이 시대를 여성의 역할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끝나지 않은 혁명(The Incomplete Revolution)'의 시대로 묘사한다. 여성과 남성의 확실한 분업이라는 전통적인 균형점이 깨어지면서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사회가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면, 일하는 여성은 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에 허덕이거나, 일을 포기할지 출산을 포기할지를 이분법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률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과연 안정적인 결혼과 높은 출산율의 균형점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에스핑-안데르센은 사회와 시민들이 여성역할의 변화라는 미완성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안정

6) 세계일보 2015.10.19자 신문에 게재된 토론자의 칼럼을 재구성한 것임.

적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수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가 동일해지는 것, 양성이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가장 평등한 모습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새로운 균형점인 것이다. 이를 사회와 시민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이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정책들간의 유기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은 더욱 연장하겠다고 한다. 청년과 고령자간의 고용 딜레마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채 말이다.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대책에 임팩트가 실리지 않는 이유이다.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마치 별개의 사안처럼 다른 장에서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두 사안에서 모두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요컨대 저출산 정책은 우리가 서있는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그 곳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조준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별개인 것처럼 다뤄지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어 임팩트있게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와 시민을 변화의 주체로 설득해내는 진정한 정치가 더해져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가족의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

토론 4

토 론 문

우 석 진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 개별 정책이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됨

- 기존 저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만 육아 정책을 접근해온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 보육정책만 하더라도 연간 1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누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 당사자들은 만족하고 있거나 적어도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히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더 나아가서 출산율 제고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평가임
- 그런 의미에서 육아 생태계 개선을 통한 문화조성이라는 측면의 접근은 바람직한 접근임

○ 일련의 프로그램이 연결성을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임신 시기에 1) 임심/출산의 전후 관리, 2) 부모 교육 등의 양질의 프로그램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지원하여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1)삶의 질, 2) 선제적 인적자본 투자 및 고도화, 3)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제는 2자녀, 3자녀 부터의 지원이 아니라 1자녀부터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 문제의 시급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기존 3자녀 지원 체계에서 최근 2자녀로 전환)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한국의 출산·육아 문화 진단과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